

영어회화에서 말차레바꿈수법에 대한 이해

최 경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자면 회화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사람들의 언어생활은 흔히 입말로 많이 진행된다.

입말은 말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수에 따라 혼자서 말하는 독백(monologue),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대화(dialogue), 여러 사람이 하는 말(polylogue)로 나뉘어진다. 여기에서 기본은 대화이다.

대화는 회화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렇기때문에 대화이자 곧 회화이고 회화이자 곧 대화로 된다.

회화의 기본단위는 일회발언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교차발언으로서 한사람이 일단 자기의 일회발언을 끝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의 말을 듣는 사람으로 된다는것이다. 따라서 일회발언이란 다른 사람에게 발언권을 양보하거나 넘길 때까지의 발언을 말한다.

만일 회화가 계속되는 경우 일회발언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일회발언이 시작되며 이러한 돌림차례는 회화가 끝날 때까지 계속된다.

회화에서 특징적인것은 한번에 한사람이 말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회화참가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서로 말할 순서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 자기 자신이 말할 순서를 어떻게 차지하는가 하는데로부터 말차레바꿈수법이라는 개념이 설정되게 된다.

말차레바꿈수법이란 일상회화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대화흐름의 순서가 바뀌어짐으로써 한사람이 일단 자기의 일회발언을 끝내면 그 순간부터 상대방이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자기는 말을 듣는 사람으로 되는 언어교체의 수법을 말한다.

회화에서 말차레바꿈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수법에 의하여 진행된다.

첫째로, 말차레바꿈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바뀌는 순서들이 대체로 순조롭게 배열되어있고 그사이에 있게 되는 발언의 중복이나 휴지(교체간격)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므로 잘 나타나지 않게 진행된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말차레바꿈시간은 때때로 2~3μs로 측정되며 평균 2/10~3/10s 걸린다. 한 발언자로부터 다른 발언자으로의 정교한 교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처럼 매우 짧은 중복이나 휴지가 이루어지는것이다.

회화에서 종종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거나 또는 한사람도 말하지 않는 경우에 대화참가자들은 그 정황을 수습하고 한명이 발언할수 있는 상태를 조성하며 오직 한사람만이 발언하도록 한다.

례① A: We: ll I wrote what I thought was a - a rea: s'n//ble explanation ...

B: I: think it was a very rude le:tter.

(//: 말걸침이 일어나면서 다음발언자가 발언하는 시점)

(A: 저 내가 생각한것은 그럴//듯 한 해설이였다고 썼지요.)

B: 내 - 생각에는 그건 아주 무례한 편 - 지였지요.)

위의 실례에서 B는 A가 말하는 도중에 말을 가로채며 말하여 말걸침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황이 조성되자 A는 자기 발언을 중지하여 B가 말하도록 하였다.

례② A: But that wz – Then you went uh Fre: ds

B: [We – we left. – we left. –

C: [No. That's the time we left Fre: ds

(A: 그러나 저 – 그다음 당신들은 프레즈한테 갔어요.

B: [우린, 우린 ... 떠났어. – 우린 ... 떠났어. –

C: [아니, 그땐 우리가 프레즈한테서 떠났을 때요.)

위의 실례에서 B와 C는 동시에 말을 뱉지만 B는 도중에 자기의 발언을 그만두고 C가 말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히 한사람이 말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회화에서 두사람이 동시에 발언을 뱉을 경우 그들중 한사람이 자기 발언을 그만둔다는것을 보여준다.

회화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정해져있어 말차례바꿈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다음에 발언하게 될 사람이 정해져있지 않을 때도 있다.

다음 발언자가 정해져있지 않는 경우 현 발언자의 역할에 따라 다음발언자가 정해진다. 이때 현 발언자는 몇가지 방법으로 다음발언자나 다음발언을 조절통제한다.

우선 다음발언자로 될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의 구체적인 특징들을 지적하여 누가 말차례를 넘겨받아야 하겠는가를 암시한다.

례① A: You haven't got just one more apple, have you, Tomy?

(사과 한알 더 들지 않았구나, 토미?)

B: Yes, there you go. (아, 됐습니다.)

② A: Excuse me for being late, Mr Baker. I was held up by the traffic.

(베이크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교통이 복잡해서 꼭 잡혀있었습니다.)

B: That's perfectly all right. Come in and join us.

(아 괜찮습니다.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현 발언자가 발언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발언자를 선택하는것은 그에게 그런 역할을 수행할수 있도록 특정한 권한이 부여되어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항상 현 발언자에게 이런 권한이 부여되어있는것은 아니며 각이한 언어정황에서 회화는 여러가지로 진행되게 된다.

번갈아 말하는 과정에 자주 말겹침, 말가로챌, 휴지 또는 침묵 등이 생긴다. 그러나 회화과정에 발언들이 서로 겹치거나 도중에 끼여들거나 말을 가로채는것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지어 회화가 파탄되는것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다. 오히려 회화를 순조롭게 잘 이끌어나감으로써 자기가 계획했던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다.

또한 현 발언자가 다음발언자를 지명하지 않았지만 다음번 발언자가 스스로 말차례를 잡는다.

례: A: An' there – there wz at least ten miles of traffic bumper tah bumper.

B: Because a' that.

(A: 거기엔 – 거기엔 적어도 10mile 정도로 차들이 뺨곡이 늘어져있었습니다.

B: 그것때문이였군요.)

위의 실례는 다음번 발언자가 스스로 말차례를 넘겨받는 경우이다. B는 A의 발언이 마

감에 이르는 순간에 휴지를 주지 않고 인차 다음발언으로 되는 자기의 발언을 전개하여 완성한다.

또한 현 발언자가 발언을 마친 후 휴지를 주어 회화참가자들속에서 자체로 임의의 사람이 다음발언을 선택하도록 한다.

말차례바꿈규칙에 의하여 일회발언사이에서나 일회발언안에서 있게 되는 휴지를 해석할수 있다.

회화과정에 있게 되는 휴지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수 있다.

그것은 이행관련시점에 이르기 전에 발언과정에 나타나는 짧은 휴지, 이행관련시점 다음에 오는 짧은 휴지, 일회발언이 끝난 다음 다음발언이 비교적 늦어지는 상대적으로 긴 휴지 그리고 일회발언이 끝난 다음 상대방의 반응이 결여된것으로 하여 생기는 상당히 긴 공백 등으로 구분된다.

아래의 실례는 공백으로 말차례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례: A: Is there something bothering you or not?

B: ... (1.0초)

A: Yes or no?

B: ... (1.5초)

A: Eh?

B: No.

둘째로, 말차례바꿈은 일회발언다음 다음발언자가 넘겨받게 될 곳인 이행관련시점을 인차 알아차리고 자기 발언을 전개해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게 된다.

이행관련시점은 한차례의 일회발언단위를 또 다른 일회발언단위와 식별할수 있게 하는 종결위치를 말한다.

대화에서 다음발언자가 정해지게 되면 그 발언자는 항상 마지막으로 되는 문장의 끝에서 발언을 넘겨받는다. 이때 마지막으로 되는 문장의 끝부분이 바로 말차례바꿈의 이행관련시점이다.

앞선 발언자의 발언이 마무리단계에 이를 때 다음발언자는 말의 흐름속에서 말차례바꿈의 이행관련시점을 인차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나 회화에서 상대방의 발언이 끝났는지 아니면 계속되는지 잘 알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다음발언자는 항상 앞선 발언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포착하려고 한다. 일단 회화가 진행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발언차례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기다리면서 그 발언차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회화에서는 수많은 일회발언들이 대체로 한개 문장으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여러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다. 이런 경우 여러 문장들이 묶어져 하나의 의미덩어리로 된 일회발언으로 된다.

회화참가자들은 현재 말하는 발언을 이해하고 분석하여 언제쯤에 앞선 발언이 끝나는가를 인식할뿐아니라 앞선 발언과 관련되는 발언을 즉시에 시작한다. 이런 경우 때때로 말겹침현상이 일어날수 있다.

례: A: Twelve pounds I think was it. =

B: = Can you believe it?

A: (.) Twelve pounds on the Weight Watchers' scale.

(=: 말차레바꿈이 일어날 때 휴지가 전혀 없는 시점; (.): 발언중에 있는 미세한 휴지)

(A: 그게 내 생각에는 12lb였어.=

B: = 그걸 믿을수 있어?

A: (.) 손님이 보는 저울논금판에 있는것이 12lb였어.)

우의 실례에서 B는 A의 발언이 마감에 오는 순간에 휴지를 주지 않고 인차 다음발언으로 되는 물음을 제기함으로써 A의 발언에 대한 의심을 나타낸다. 그다음 A는 미세한 휴지를 주어 발언하면서 앞서 발언한것에 대한 변명을 한다.

례: A: No, she is someone who - is a carbon copy of her friend.

B: Drinks Pepsi.

(A: 아니, 그 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의 친구와 꼭같더구만.

B: 음료로 펩시를 마시지요.)

우의 실례에서는 B가 A의 발언시작을 들으면서 그의 말이 끝나지 않아도 적당한 순간에 자기 발언을 함으로써 말접침이 일어났지만 A의 말에 대한 B의 대화감정을 풍부히 하고있다.

례: A: The guy who doesn't run the race doesn't win it,

but he doesn't lose it.

B: B't lose it.

(A: 달리기를 하지 않는 그 친구는

이길수 없지만 지지도 않지요.

B: 그러나 - 저요.)

우의 실례에서 B는 A가 하는 발언의 마지막부분을 예측하여 그 부분을 거의 동시에 같이 말하였다.

이러한 실례들을 통하여 대화참가자들은 이행관련시점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여러가지 어용적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법으로 말차레바꿈을 진행한다는것을 알수 있다.

말차레바꿈이 파괴되면 대화자들사이에 불만이 조성되는것으로 하여 교제의 중단, 의혹, 불만, 오해 등과 같은 역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회화에서 나타나는 말차레바꿈구조에는 말차레바꿈순서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겠다는 혹은 상대방의 말을 듣기만 하겠다는것을 암시하는 신호수단들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호수단들에는 감탄사나 말근더더기들, 비언어적수단들인 머리를 끄떡이거나 미소를 짓는다든가 몸짓, 손짓, 얼굴표정을 짓는것과 같은것들이 있다. 발언참가자들은 이러한 신호수단에 의하여 말하는 사람의 순서를 위반하지 않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영어회화구조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그 성과를 외국어교육 실천에 효과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외국어전문가양성의 질을 더욱 높여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